日 문예지, 문병란 시인 '저항 정신' 조명

진보 문학지 '여성의 광장' 9월호
인권·민주주의 가치 추구했던 문인
5·18 당시 대성학원 강의 내용
작품 '직녀에게'·애독 시 등 소개
"시민 감정 대변…희망 줬다" 언급

고 문병란 시인

'여성의 광장' 9월호

남도가 배출한 문병란 시인(1935~2015)은 통일,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했던 문인이었다. 그는 생전 문학을 통해 5월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등 민주화운동을 펼쳤다.

일본의 진보적 문예지가 문병란 시인 광주민중항쟁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리명한 문병란기념사업회 회장에 따르면 일본의 '여성의 광장' 9월호가 문병란 시인의 5·18민중항쟁 관련 강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성의 광장'은 일본 진보 학회인 '일본민주주의문학회' 소속 작가들의 주요 작품 발표 무대다.

문예지는 먼저 80년 5월 당시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1979 군사독재 정권하 박정희가 암살된 후 전두환이 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 민주화운동을 억압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추구하는 대규모의 데모가 이어졌고 시민들이 일어섰다"

그리고 '여성의 광장'은 당시 문 시인이 광주 입시학원이었던 대성학원에서 강의하며 문학적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한 점을 주목했다. 당시 경찰의 감시가 엄했던 시기이므로 문 시인이 학생들에게 직접 나서서 투쟁하라는 직접적 표현은 삼갔다고 전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의 시를 통해 권력에 맞서는 정신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성의 광장'은 문 시인의 '직녀에게'를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한다.

"조선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이후에도 6.25 전쟁, 남북분단, 군사독재로 이어진 비운의 땅이다. 남북분단 이후에는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비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쓰라림, 권력에 대한 저항을 민중은 '시'라고 하는 응축된 형태로 표현했다"

언제 읽어도 '직녀에게'라는 시는 잔잔한 울림을 준다. 통일을 향한 시인의 애절한 바람은 오늘의 답답한 남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안타까움으로 읽힌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둣돌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선 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또한 문예지는 문 시인이 평소 애창하던 이육사의 '절정'의 전문도 소개한다. 문 시인이 추구했던 문학의 가치와 지향은 이육사의 '절정'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오다. //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여성의 광장'은 '절정'을 거론하며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여 암투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시인들의 언어는 군사독재정권이라고 하는 현실에 고통스러워하던 시민들의 비분의 감정을 대변했으며 희망의 빛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시인 타계 7주기를 맞은 기념사업회에서는 기념사업 1편으로 펴낸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조선시인 독립과 저항의 노래'에 이어 국내에서 '문병란 시인 문학서설'을 소개한 내용을 담은 2편을 조만간 출간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블랙핑크, 영국 차트도 접수

K팝 걸그룹 최초 오피셜 앨범 1위…싱글 차트도 2곡 진입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가 K팝 걸그룹 최초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 정상에 올랐다.

23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이 음반은 스웨이드, 리나 사와야마 등의 쟁쟁한 아티스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가 이 차트에서 거둔 종전 최고 순위는 지난 2020년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으로 기록한 2위였다.

영국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와 더불어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양대 차트로 꼽힌다. 한국 가수 가운데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른 이는 지금까지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일했다.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는 가수 싸이가 지난 2012년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히트곡 '강남스타일'로 1위에 오른 바 있다.

블랙핑크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2집 타이틀곡 '셧 다운'(Shut Down)을 24위에, 선공개곡 '핑크 베놈'(Pink Venom)을 38위에 각각 올려놨다.

블랙핑크는 '본 핑크'를 한터차트 기준 발매 첫 주 154만장 이상 팔아치우며 글로벌 저력을 과시했다. 이에 오는 26일 윤곽이 드러날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도 최상위권 진입이 전망된다.

블랙핑크의 '본 핑크'에는 타이틀곡 '셧 다운'을 비롯해 다채로운 장르의 8곡이 수록됐다.

'셧 다운'은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를 샘플링하고 트렌디한 힙합 비트를 아울러 클래식과 힙합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의 음악이다. /연합뉴스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정혜진 동화작가, 동시집 '우리 곁엔 병원이 있어' 펴내

"우리는 가끔 곁에 있는 고마움에 대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햇볕과 물과 자연에 대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준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도 무심코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위를 돌아보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정혜진 동화작가가 열일곱 번 째 동시집 '우리 곁엔 병원이 있어'(좋은꿈)를 펴냈다.

작품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을 누린다는 사실을 모티브로 한다. 모두 60여 편의 동시는 병원에 관한 작품 위주로 구성돼 있다.

시인은 '체온계', '반창고', '청진기', '고무줄' 등 병원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의인화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병원을 순례하며 드는 생각은 건강한 삶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이다.

"여기 봐 주세요.// 출입구에 서서/ 눈으로 말을 건 체온계// 36.3도/ 정상 체온입니다.// 순간 비춰 주고/ 새침하게 지워 버린 반응// 코로나19 예방 위해/ 열 감지하는/ 특급 임무 수행하고 있다."

위 시 '체온 감지기'는 병원에 들어서면 볼 수 있는 풍경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익숙해진 '체온 감지기'는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특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비단 '체온 감지기'만은 아니다. 언급한 대로 병원에서는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다양한 직원들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다. 각각의 시들은 평소에 잊고 있었던 우리 주위 사람들과 사물들에 고마움을 생각하게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흥 출신의 정 시인은 조선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동화집 '달꽃을 품은 엄마', 동시집 '바람과 나무와 아이들' 등을 펴냈으며 한국동시문학상, 한정동아동문학상, 전남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안방극장 '법정물' 홍수

'천원짜리 변호사' 등 5개 방영중
"비슷한 캐릭터 반복돼 식상" 지적

단돈 천 원만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괴짜 변호사부터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물어뜯는 독종 변호사까지.

25일 방송계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가 줄줄이 안방극장을 찾고 있다.

24일 처음 방송된 JTBC 드라마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은 대법관부터 로스쿨 교수, 검사, 변호사까지 집안사람 모두가 법조계에 발 담그고 있는 특권층의 위선과 욕망을 들여다본다.

법조 카르텔을 현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현직 변호사 여러 명이 공동 기획했다.

23일 첫 방영한 SBS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서는 배우 남궁민이 단돈 천 원만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괴짜 변호사로 변신하고, 지난 16일 처음 방송된 tvN 드라마 '블라인드'에서는 하석진이 원리원칙을 중요시하는 판사로 분한다.

현재 방송 중인 KBS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검사 출신 건물주와 정의감이 투철한 변호사의 사랑을 그린다.

이처럼 현재 방송되는 드라마 중 법조인이 주인공인 드라마만 총 5개. 능력 있고 정의로운 주인공이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수 있지만 같은 캐릭터가 반복되면 대중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희정 드라마평론가는 "이제 시청자들에게 거대악과 싸우는 히어로적인 법조인 주인공은 식상하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